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KBS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大賞 수상

자료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 20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4주년을 맞았다. 2022 방통위 방송대상에는 작년에 제작·방송된 총 238편의 작품이 응모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예심과 본심을 거친 결과 KBS의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대상) 등 총 15점이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 시상식에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정부, 국회, 방송사 등 각계 인사가 함께 자리해 창의적이고 품격있는 방송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 화합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한 수상자들과 방송인들의 노고를 축하하였다.

이날 한상혁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방송대상 수상작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시청자와의 소통과 참여, 방송과 첨단기술의 접목 등을 통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작품들도 돋보였다”면서, 방송제작인들의 헌신과 열정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방통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낡은 방송규제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제도는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창의 인재 양성, 제작 인프라 구축,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확대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양한 주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명품 다큐와 지역방송사의 선전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는 대상 1편을 포함하여 우수상 8편 중 5편이 모두 교양·다큐멘터리 장르에서 선정되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주제·소재 또한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시대정신이 잘 드러난 작품들이 많았다.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 독립군의 여정, 6.25 전쟁 피해 여성들의 아픔, 속의 민주주의 실험, 지역으로 격차와 공공의료 현실, 우주진출 등 글로벌 환경이슈,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약자, 미래 의제 등을 다루며 프로그램 다수가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다른 특징은 지역방송사들과 라디오 매체의 선전으로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제를 유의미하게 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가 곧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일깨워줌으로써 지역방송의 존재가치와 경쟁력을 보여주었다.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은 한류 드라마 강세

올해 초 발표된 <해외한류실태조사>, <콘텐츠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류 콘텐츠 소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드라마(53.5%), 예능(51.5%) 등 콘텐츠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해외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방송 분야에서의 수출이 크게 증가(28.5%)했다.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도 국내를 넘어 글로벌 흥행으로 화제가 된 드라마의 활약이 돋보였다. 최우수상을 받은 ‘옷소매 붉은 끝동’(MBC)은 일본·대만·베트남·인도 등 아시아를 비롯해, 미주, 유럽, 중동 등 세계 각국 방송사와 OTT에 수출되어 큰 인기를 얻었다.

첨단기술과의 접목, 시청자 소통과 참여로 진화하는 방송

KBS ‘키스 더 유니버스’는 AR 기술 등을 활용한 국내 최초 체험형 UHD 다큐멘터리로 첨단기술을 실험하는 시도로 주목을 받았고, SBS 디지털뉴스랩 ‘가자! 네이처돌이’와 울산MBC ‘퇴근길 톡톡 기부앤티이크’는 각각 친환경캠페인, 소상공인기부캠페인과 연계한 콘텐츠 포맷 혁신과 창의적인 기획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였다.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분야	부 문		수상작		시상규모	시상금	훈격
			사업자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大 賞		KBS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1점	2천만원	대통령
	최우수상		MBC	옷소매 붉은 끝동	1점	1천2백만원	국무총리
	우수상	사회문화발전	YTN 라디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특집 다큐멘터리 <서간도의 별들, 3500>	8점	4천8백만원 (각 6백만원)	방송 통신 위원장
			원주MBC 춘천MBC MBC강원영동	전쟁, 여성을 기억하다 3부작			
		지역발전	울산MBC	퇴근길 톡톡 ‘기부앤티이크’			
			MBC경남	놀이터 민주주의			
			목포MBC	의료공백, 지역이 아픕니다			
		창의혁신	KBS	KBS 대기획 <키스 더 유니버스>			
		한류확산	CJ ENM	갯마을 차차차			
		웹·앱콘텐츠	SBS 디지털뉴스랩	가자! 네이처돌이			
특별상	공로상		SBS 미디어기술연구소, EBS 정현숙, 경인방송 도호암		3점	2천만원 (각 4백만원)	방송 통신 위원장
	제작역량우수상		CJ ENM (On Style), 이벤트티브이 (이벤트TV)		2점		